

시·도지사 승·신년 회견 주요 내용

車·에너지·문화 3대 산업 육성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대 연다

광주형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

세계수영선수권 알뜰 명품대회 준비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 등 광주형 선순환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의 기회를 운영해 기업·청년의 수요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광주 지식산업센터에도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청년 창업과 취업 유도를 통해 광주시 청년 활력도 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형 일자리창출의 핵심 기반이 될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조성사업 등 자동차산업 발전 방안도 밝혔다.

윤 시장은 “자동차산업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차 선도시를 만드는 일에 절박한 심정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에너지 기업 유치, 배후 산업 조성,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등은 에너지와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핵심 전략이다.

윤 시장은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6 광주비엔날레를 분산 개최하고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문화장관 회의는 광주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준비하겠다”며 “문화전당의 날개인 금남로, 양림동, 푸른 길 공원을 연결해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비엔날레가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분산돼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는 올해 하계 유니버시아드처럼 세계가 전시를 보낸 알뜰한 명품대회로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시장은 또 “무등산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가사문화관을 연결하는 체임프로그림 정비,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으로 전·지·인왕봉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분 급행버스 도입, 광주~완도(간선)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새해 시정의 목표다.

윤 시장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와 위기가정 긴급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에너지밸리 기업 60개 유치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이 계획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핵심 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주를 전기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춘 ‘에너지시티’ 모델로 만든다. 2025년까지 도내 유인도 50개를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고, 2016년 에너지기업 60개를 새로 유치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자립섬을 2014년 기준 3.74%에서 2025년까지 3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에너지 기업 7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남도문예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착수해 남종화, 판소리, 정자 및 정월, 도자기, 차 등 예향 남도의 전통을 되살려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재창조하는 방안을 오는 2016년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은 물론 대만과 북한도 참가하는 동양화 비엔날레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동북아시아의 공감대’인 동양화를 소재로 국제문화교류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동양화만이 아니라 차, 전통창곡, 도자기 등도 교류의 대상이다. 국내 최고 석학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용역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목표관에 ‘황해교류역사관’도 설립한다. 전남에 산재해 있는 중국 역사자료와 인물 관련 자료들을 한 곳에 집대성해 중국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드론산업 육성 ▲매년 중국 1개 성(省)과의 ‘상호방문의 해’ 운영 ▲강진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치 ▲2020년 흑산공항 개항 준비 종합계획 수립 ▲광주·전북과 함께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사업 시행 준비 착수 등도 추진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남도는 민선 6기의 정점인 2016년을 맞아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문예 르네상스를 2대 전략 프로젝트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지역 미래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고, 산업화 중심의 발전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의 남종화, 판소리, 정자 및 정월, 도자기, 차 등 전통 문화예술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비와 도비 등 16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 의장·여야대표 사퇴하라”

서삼석·김영집·서동용 국회 기자회견...황주홍 “문대표 농어촌 선거구 외면”

수개월을 끌어온 선거구 여야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고 ‘선거구 부존제’ 상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소송’ 및 선거실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서삼석 전 무안군수,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서동용 변호사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여, 야 모든 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에 대해 예비후보자와 출마 예정자 그리고 전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입법 비상사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미획정이 되면 국회의원 지위 유지에도 논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

고회, 의정 보고서 발송 등 사실상의 선거 운동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전국의 모든 예비후보자와 출마 예정자들의 빼앗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운동 방안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황주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은 현재의 지역구 246석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면 전국 농어촌 선거구는 초도화되는 것이고, 400만 농어민들의 주권과 대표성은 무참히 짓밟혀 버린다”고 통탄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석 고수를 위해 별별 수를 다 써가며 여야 합의를 사실상 지연·방해해온 문제인 대표

의 행태에 분노의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며 “문 대표가 지난 11월18일 광주 조선대 강연을 통해 ‘농어촌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7석까지 줄이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면 광주 동구도 선거구가 그대로 지켜지게 된다’고 한 공언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이 담긴 선거법 직권상정 시기와 관련 내년 1월1일 0시 이후부터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1일 0시부터) 고려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직권상정의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나도 알 수가 없다”고 덧붙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장현 “변화의 흐름 지켜보고 때 놓치지 않겠다”

이낙연 “당적 변경 없어... 새정치 분열 어리석다”

탈당정국 시·도지사 행보 주목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 수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잇달린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우선 ‘안철수 사람’으로 분류되는 윤 시장은 28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승·신년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행보보다는 150만 시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고 때를 놓치지 않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안철수 의원 탈당 후 “시정에 전념하겠다”며 정치적 언급을 자제한 기간

의 행보를 고려하면 진 일보한 것으로, 내년 총선 이전 탈당을 고심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윤 시장은 “새로운 정치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화두는 광주의 역사를 존중해주고, 미래 광주시민의 삶에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라며 “정치인 윤장현으로서 일회일비하거나 유·불리 판단을 하지 않고 시민 시장으로서 민생을 우선 시하면서 거취도 시민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반대 여론에도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몫으로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정가 안팎에서는 ‘의리’ 차원에서 윤 시장이 안 의원과 동행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반면, 4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새정치

민주연합 당원인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담회에서 “당적 변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탈당, 신당 출현 등 갈수록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야권 분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분열과 관련해 “어리석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지만 “중앙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지도자가 최악의 상태는 피해야 현명하지만 정치집단이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파국이라는 것을 보면서 조 조직을 움직이다 보면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금 야권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p>클래식 ABW100_KE/OZ/LJR 푸켓 6일</p> <p>더 나카 오션뷰 풀빌라(2+2)</p> <p>총상품가 1,749,000원~</p> <p>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작성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 & 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p>	<p>클래식 AXW100_SQ/KE/QR-H 몰디브 6일</p> <p>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p> <p>총상품가 3,763,600원~</p> <p>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p> <p>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p> <p>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p>
--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정보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식/요금, 여행정보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사]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시장 여객선 운임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통보를 받습니다. ■관광사양서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 ■최소 출발인원 10명 / 출발 2일 전 15/고통면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원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여행 유망 2 ●여행 자제 3 ●참수 권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